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강해

위대한 회복과 부흥의 서곡

(에 1:1 - 22)

Overture of the Great Recovery and Revival

(Esth. 1:1 - 22)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위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인 주전 474년 경, 바벨론에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 가운데 바사에 거주하던 이들이 하만 장군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시며 놀라운 민족적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다음과 같은 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ll of us ultimately exist for Jesus Christ. At the end of all works, there is Jesus Christ, and He exists for God's glory.

Esther is a book which concretely proves this great fact. Around 474 BC, the 12th year of king Xerxes' s ruling, those who resided within Persia among the Jews who didn't return from Babylonia were in the crisis of death because of Haman's plot. However, God dramatically saved them through Esther and wonderfully accomplished the Jew's revival.

In the book of Esther, five people appear as follows:

- 1.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신생 강국으로 등장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세 명의 왕 중 한 명이며, 에스더서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려 127도를 다스리는 막강한 왕이었습니다(1절).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자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7일 동안 또 열었습니다.
- 2. 왕후 와스디**
와스디 왕후는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할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3. 하만 장군**
하만 장군은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충신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권세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떨어뜨릴 정도라고 했고, 그가 길을 지날 때면 마치 왕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의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 4. 모르드개**
모르드개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 너무도 비참한 모습으로 붙들려 온 포로입니다. 그는 천한 포로 신분에 불과한 사람였습니다.
- 5. 에스더**
에스더는 모르드개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유대 여인입니다. 포로 신분이었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 한 몸 맡길 곳 없었던 고아로, 사촌 모르드개가 거두어 키우기 시작한, 측은하기 짝이 없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막강한 권세를 잡은 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모르드개를 일찍이 준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사촌 에스더를 양육하게 하여 그들을 통해 유다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며, 결국 나에게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King Xerxes**
King Xerxes was one of the three kings of Persia which built a country, after the kingdom of Babylon was destroyed. Esther was just a historical book at the time of King Xerxes.
- 2. Queen Vashti**
Queen Vashti was a woman who possessed everything that a woman can have. She had good looks and not to mention wealth and power. It was obvious of king Xerxes reason to boast of queen's beauty to other people.
- 3. Gen. Haman**
Haman was a royalist whom king Xerxes most cherished and trusted. At that time, his power could make birds of the air fall down, and when he walked on the street, just as people knelt down and paid honor to the king, so did the people kneel down and pay honor to Haman.
- 4. Mordecai**
Mordecai was a prisoner of war taken as an insignificant person, when his own country Judea, was destroyed by Babylon and basically disappeared from the historical stage. He was only the status of a humble prisoner of war.
- 5. Esther**
Esther was even more miserable and pitiful than Mordecai. She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was a prisoner of war, an orphan with no place to go and no one to turn to. And she was a poor and pitiful little girl who was cared and raised by her cousin Mordecai.

My beloved Christians!

The world pays attention to those who have mighty power. However, God pays attention to us, His people and works through us. God prepared Mordecai to exceed in faith and teach his cousin Esther, and accomplish the work of Judea's salvation.

Even now, this time, God pays attention to me, loves me, moves the world's everything for me, and finally will allow recovery and revival for me. Therefore, only by looking at the L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xperience the wonderful, great, and blessed recovery and reviva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새해에 변화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교육

2013년 부터 우리교회에서 달라지는 것 중 가장 큰 사항은 각 교회학교별 예배의 부활이다. 2000년 대치 동시대를 열면서 9시 1부 예배를 가족예배, 3부 예배를 대·청부 중심의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교육1국 학생들의 증가와 부모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예배참석의 어려움으로 내년 2013년부터는 교육 부서 자체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요일/시간	장소
유년부	주일 오전9시	701호
초등부	주일 오전9시	601호
중등부	주일 오전9시	501호
고등부	주일 오전9시	101호
청년1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2013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가정 한 선교사

- 후원자 접수는 사무국에서 -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다음 주부터 사무국에서 받는다. 농어촌100교회 운동은 고향을 지키며 어렵게 목회하는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운동으로 한 구좌 10만원이다. (1/2구좌도 가능)

또한 Vision2020 운동은 민족의 75%를 2020년까지 복음화 하고자 시작된 운동으로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Vision2020 운동 후원금은 장병1인 세계경비(1구좌 5,000원 2구좌 10,000

원)를 후원하는 것이다.

한가정 한 선교사 운동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운동으로 한 구좌를 10만원으로 하며,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다. 어린이, 청소년은 1구좌를 5,000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학생들도 선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토록 하고 있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교회학교 교사 총회 및 연합 기도회

12월18일(화) 오후 7시30분/ 101호

2013년도 교회학교 교사 총회 및 연합 기도회가 12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 101호에서 모인다. 이날 총회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는 2013년도 교육 지침을 발

표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교회학교 전담 교역자 및 교육국장, 부장, 차장, 전체 교사이다.

교회 건물 내에서의 의료행위

교회 전체 성도들 대상으로 한 물품 판매 행위 금지

앞으로 교회 건물 내에서 주일 또는 주중에 행하여지는 일체의 의료행위(침술행위 포함)는 비록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된다.

또한 9월에 열리는 사랑의 바자 이외에 예배 전, 후

교회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되던 일부 교구나 전도회의 물품판매행사 역시 교회 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체 금지된다. (단 개별 부서모임에서 그 해당부서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판매행사는 가능함)

김상철 장로 별세

12월17일(월) 오전 9시 천국환송예배



우리 교회 김상철 시무장로가 지난 12월 13일(목) 향년 6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되어 있다. 입관예배는 오늘 오후 7시에, 천국환송예배는 12월 17일(월)

오전 9시 이종윤 원로목사의 집례로 서울교회장으로, 하관예배는 박노철 담임목사의 집례로 천안공원묘원 서울교회 묘역에서 집행된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원자 권사와 장남 김세호 집사, 자부 정신아 집사, 장녀 김민정 집사, 사위 김범수 집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소요리문답부 수료자 명단

강영신 곽태수 권신영 김덕순 김만윤 김수정 김영숙 김영정 김진달 이상섭 이상숙 채덕희 최성을 허정연
- 이상 14명 -

신앙강좌1부 2학기 수료자 명단

강승웅, 구흥환, 김규환, 김상태, 김현관, 박석현, 박희서, 배준길, 신종진, 신성균, 안선광, 양지훈, 윤찬오, 오교식, 임종태, 이광열, 이덕빈, 이상호, 이은상, 전영돈, 최명남, 한중우, 홍창배 (남:23명)
고영숙, 곽선자, 김명숙, 김윤지(2), 김선자, 김신애, 김자경, 김점숙, 남상경, 마은숙, 문가자, 박명석, 박복순, 이강인, 이순열, 이정자, 이재순, 오민자, 원명희, 조민자, 최진, 최화옥, 황노전, 홍성숙 (여:24명) 총 47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3]

(문 72)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 8:30)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 시려고 택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신 12:12-14) 이것은 서로 마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전이 세워지기 전에 대개 높은 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신 12:2-14) 실제로 예배 처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가나안 정복 때부터 솔로몬 성전 시까지 길갈에서 실로로 그리고 기브온으로 변경되었고 그 곳은 장막과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헌당된 후 모든 희생제물은 성전에서만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기에 와서는 그의 우상숭배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영향으로 높은 언덕 위에 산당을 짓고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왕상 11:5-7) 그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막기 위해 신 12:2-14에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언덕 위의 산당들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 왕국은 물론 남 유다에도 세워졌습니다. 아사왕 때 남 유다의 산당들은 파괴되었으나(대하 14:3)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산당들은 야훼 하나님 섬기는 예배 처소가 되었고 그러나 신 12장의 택하신 예비장소 규례에는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왕하 23:8에 의하면 이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했으나 신 13장의 규례대로 죽임을 받아야 할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아왕의 종교개혁 시에 그들은 살게 되었고 오히려 아론의 제사직을 돕기 위한 음식물 바치는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에발산에 여호수아의 제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회개와 갱신을 위한 것으로 출 20:24-25에서 선포된 제단법대로 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하신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북 왕국에는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으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단에 불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섬긴 바알은 거짓 신으로 드러난 것(왕상 18:30-39)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 8:30과 신 12:12-14 말씀은 상호 마찰이 없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순례자 칼럼 -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본 칼럼은 이종윤 원로 목사님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한국장로신문사에 기고한 것이다. (편집자 주)

우리는 바야흐로 자기 남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칭 이 시대의 선지자요 능력의 사자며 민족의 지도자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후보를 수출할만큼 그 수가 많다는 것은 인재가 많이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어물전에 끌꾸기들이 많다는 뜻도 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주저했으며, 사울은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고 있었을 때 행구 사이에 숨어버렸다. 이스라엘 영웅 모세는 자신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노라 하고 광야로 물러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앞에 끌어내어 지도자로 세우셨다. 지도자는 자기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돌 볼 지도자가 누구일까?

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여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갈등 속에서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도, 교육도, 통일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보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자세다. 데모대가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자기목적 달성을 위해 화염병을 던진다면 그는 방화범이요, 철봉을 휘두른다면 그는 살인범이다.

둘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여야 한다. 기계의 세계에는 지도자가 필요없다. 혹 동물의 세계에서 힘의 논리로 지배권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 인간사회에서는 기능과 생산적 결과만 보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지도자의 인격보다 자칭 자질이나 효과만을 갖고 평가할 경우 그들의 작은 기능

적 실수가 많은 사람의 생사를 가능케 하는 경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군사력의 쇠퇴에서보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부패가 그 원인이었다는 역사가들의 평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뽑을 줄 아는 회개하는 사람, 보복이나 하는 줄부가 아닌 관용과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고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국가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국민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도덕적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한다.

셋째, 지도자는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격언은 명언이다. 작금 우리 국민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 폭발 직전에 있음을 감지하는 지도자가 있을까.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은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픔이었다. 그것은 모두 지도자와 백성들의 부정과 부패에 관련된 것이었다. 공직자의 정직과 시민들이 양심에 아무리 호소해 보고, 무서운 형벌을 법으로 규정해 놓아도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병역 의무를 이행치 않은 이들이라 한다. 범죄 기록을 가진 자가 1/3이 넘는다는 말은 힘 가진 이들이 흔히 그 힘을 이용하여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사람만이 부정과 부패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더러운데 어떻게 국가 사회를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넷째, 사회 통합과 쇄신을 이벤트성이 아닌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지방색, 당파색, 학력차별, 재력 차별, 기득권 주장, 성 차별, 직업 차별, 인종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서울장신대석좌교수)

차별, 종교 차별등 수많은 차별로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어 나뉘었다. 사회를 포용하여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통합한다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이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을 펼 때 사회가 쇄신될 것이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자기 쇄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안보에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이라야 한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를 왜곡하고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 아닌 북침이었고,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는데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기회를 놓쳤다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NLL 그리고 한미FTA가 국익과 배치된다는 역측을 외치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릴 것이다. 바른 국가관과 역사 의식과 안보 의식이 투철한 이라야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이를 찾은 이라면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은 없다. 최선이 없다하여 포기하면 나라는 더 위험에 빠진다. 내 마음에 꼭 맞는 후보가 안보이면 비교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분을 택하는 것도 국민의 도리일 것이다.

오늘의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과 행복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빛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그리고 국격이 높아지고 부강한 정의로운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찍어 복음화된 통일조국, 세계복음화의 산실이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를 찾아내는 성도가 되자.

나의 하나님

복된 죽음



황노전 권사(9교구)

“어머님, 참 잘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훌륭한 지도자, 부자, 종교인, 학자들이 많은 업적을 쌓고 살아왔다고 해도 그 마지막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믿지 않는다면 그들 누구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을 얻으셨으니 정말 일생을 아주 잘 사신 삶이십니다.

병상 세례를 베푸신 서명철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은 시어머님의 메마른 가슴에 평화의 강물이 되어 기쁨과 안도의 얼굴빛으로 환하게 상기되었습니다. 믿음의 홀씨 되어 시택에 떨어진 지 만 38년 6개월 만에 이루어주신 기도 응답의 큰 열매입니다. 때론 울기도, 절망하기도, 주저앉아 포기하며 원망하기도 했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 때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왔던 말씀은 ‘10년, 20년, 쉬지 않고 나오는 똑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비전 있는 약속의 기도’ 라고 하

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을 심방하신 목사님들의 카드에는 어머니 정점순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을 것이며, 우리 다락방 가족들, 교구 가족과 전도사님, 권사님들께 기회 닿는 대로 기도 부탁했던 일, 마지막 병상에 누웠을 때 사망자대회 VIP 초청자 기도 명단에 기록되어 수많은 얼굴도 모르는 귀한 성도님들의 큰 사랑과 큰 기도의 힘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영광과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예비하신, 고통 없는 편안한 부르심과 맑고 따뜻한 날씨, 26명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어머니 천국 가시는 예배를 함께 드린 예배의 감동. 경남 고성 본가 마당에서 30여명의 서울교회 가족들과 함께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고 산중턱까지 장로님, 집사님들의 운구로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예배를 드리며 온 마을이 울리도록 힘찬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약속의 말씀과 믿고 의지하여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복된 죽음을 마지막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규초 집사(제1스데반회 회장)



지난 해 무익한 종이 회장직을 임명 받고 스테반회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자.

둘째, 예배와 모임에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덕으로 서로 섬기자.

연초에 스테반 회원 교제의 장인 척사대회와 연합수련회로 담임목사님의 "하나님의 감동", 원종천 교수님의 "개신교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모두 은혜 받고, 지하 주차장 대청소, 교육자 김태기 장로님의 "기독교인의 국가관"특강. 흥해작전, 여수 국제 EXPO 야유회, 사랑의 대잔치, 바자, 연합 체육대회, 건강 특

강, 사명자대회 등 주차 봉사, 만나 홀 청소, 수요일간 전도, 새벽 천국환송예배로 모이길 힘쓰는 섬김의 한 해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도 해 주신 유문건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기도와 헌신으로 협력한 임,역원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동역한 제2스데반회 회원님께도 감사합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시고 은퇴하시는 집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임직 장로님께 축하 드리며 아울러 충성을 다짐한 신입 회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섬김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테반 회원 모두가 건강하지 못하여, 물질 없어 봉사 못했다고 변명 하지 않도록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합니다. 아멘

남태순 권사(제2권사회 회장)



1년전 권사회장으로 부름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길 것을 다짐했지만 항상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힘든 일 굶은 일 마다 앓고 도와주신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 월례회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 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권사들의 가정과 환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원거리를 마다 앓고 심방을 함께 다니신 임원들, 교회 행사와 봉사를 위해 열심히 도

움의 손길을 주신 회원들, 그리고 성찬식을 위해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주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신 성례부 회원 등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하 3층에 있는 나눔의 집이 확장되고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사랑방 역할을 하며 특히 구제부원들 목회자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을 백화점 손님 맞듯이 대하며 열심히 한 결과 많은 수익금을 내어 아가페 건축헌금으로 바치게 된 것은 우리 권사회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7: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고 저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선영 권사(제1권사회 회장)



연약한 중에도 2012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회장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건강에 두려움이 많이 앞섰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는 사람의 계획과는 다른 것임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봉사를 시작하는 첫 주에는 서 있기도 버거운 회장을 앞세우고 묵묵히 헌신하시는 권사님

들의 사랑과, 금년에는 유난히도 많았던 교회 여러 행사에도 기쁨으로 봉사해주신 제1권사회(전 제2권사회) 권사님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더욱이 함께 해주신 임역원들과 모든 권사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저는 회장으로 봉사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권사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듬뿍 받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제 사랑에 빛진 자로 2013년 제1권사회에 주께서 동행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호산나 찬양대(대장: 김일순 권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서희숙 권사의 지휘로 찬양곡 "오직 주만이", "내 증인이 되리라", "모퉁이 돌"의 세 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선생, 피아니스트 홍혜란 집사, 팀파니스트 윤중현 선생이 연주하며, 전광환 집사와 조미환 권사가 곡중 독창을 하고, 김선희 권사와 김교은 집사가 내레이션을 담당한다.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일 삼성로 주정차 시 버스정류장 표지 전후각 10M 씩, 횡단보도 등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맙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7일(월) Save N.K(북한구원운동)탈북자 난민촌건설 후원의 밤 행사를 주관한다. 18일(화) 서울장신대총장 초청 교수워크숍에 참석한다.

■ 청년1·2·3부 회장단 선출: 청년1부 회장: 오태경 부회장: 조인주/ 청년2부 회장: 유일환 부회장: 박재원 / 청년3부 회장: 김갑중 부회장: 우교은

■ 주간식당봉사: 한나전도회(12.16) 리브기전도회(12.23)

■ 금주의 식사: 김은태집사·전해미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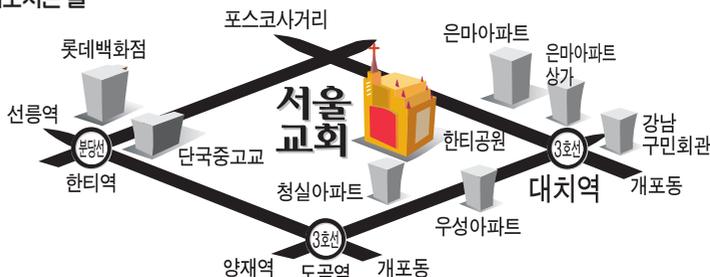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뤄지는 18대 대선이 되게 하시며 대립하는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를 이뤄주소서
2.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예배를 통해 다음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3. 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랑과 평화의 햇살이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